

이야기 5 : 최후의 만찬

주제말씀
[마태복음 26: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밥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 자유를 찾게 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아주 기쁜 날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고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두 식탁에 앉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깨끗이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은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 저의 더러운 발을 하인처럼 씻겨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겨 주어야 내 제자가 되는 거란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의 발을 모두 씻어 주신 다음 식탁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려는 마음을 가져라. 곧,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또 포도주 잔을 들어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비록 나를 따르지만, 얼마되지 않아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아직 갈 수 없다.

나는 천국에 가서 너희가 살 곳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기념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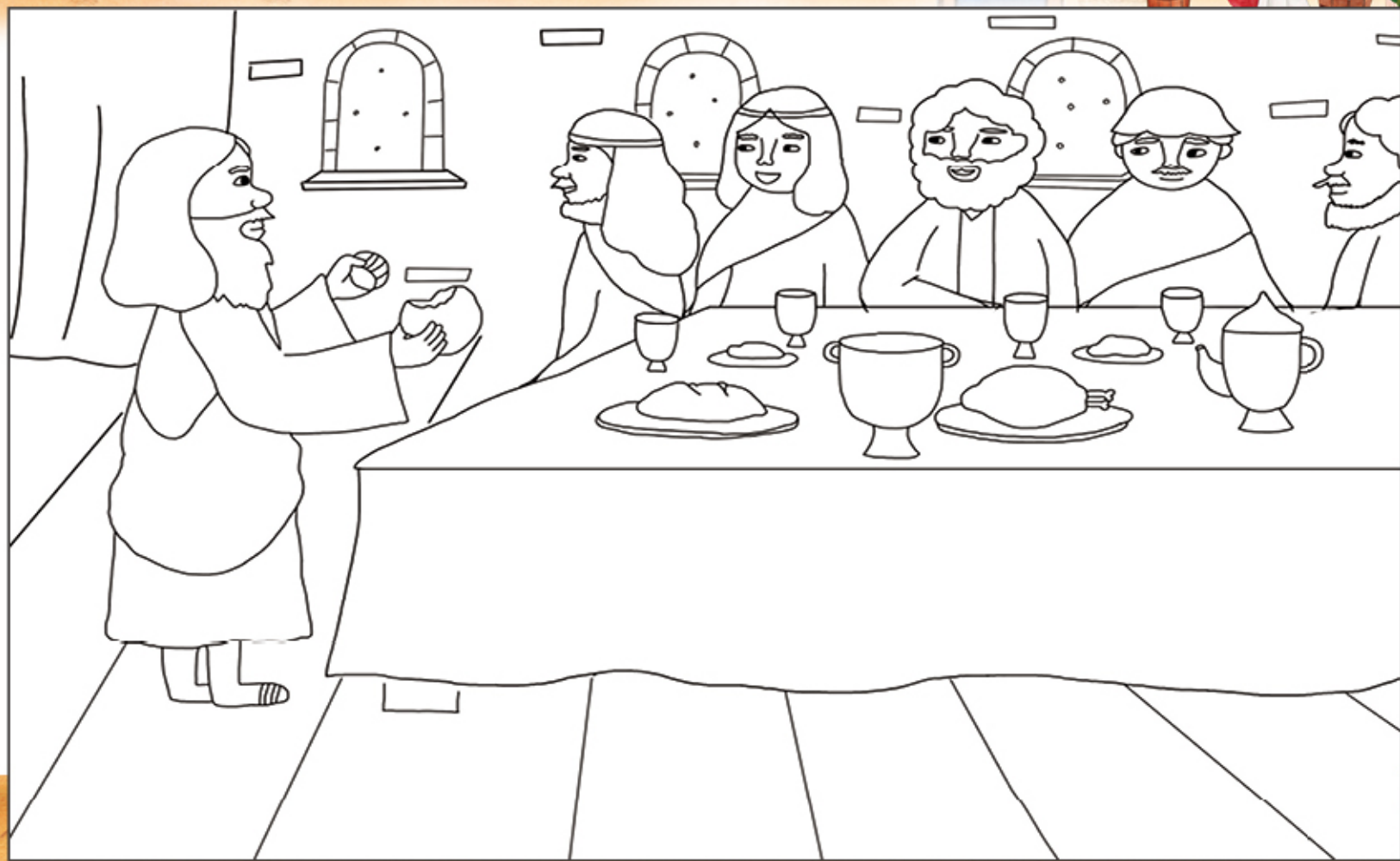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해요.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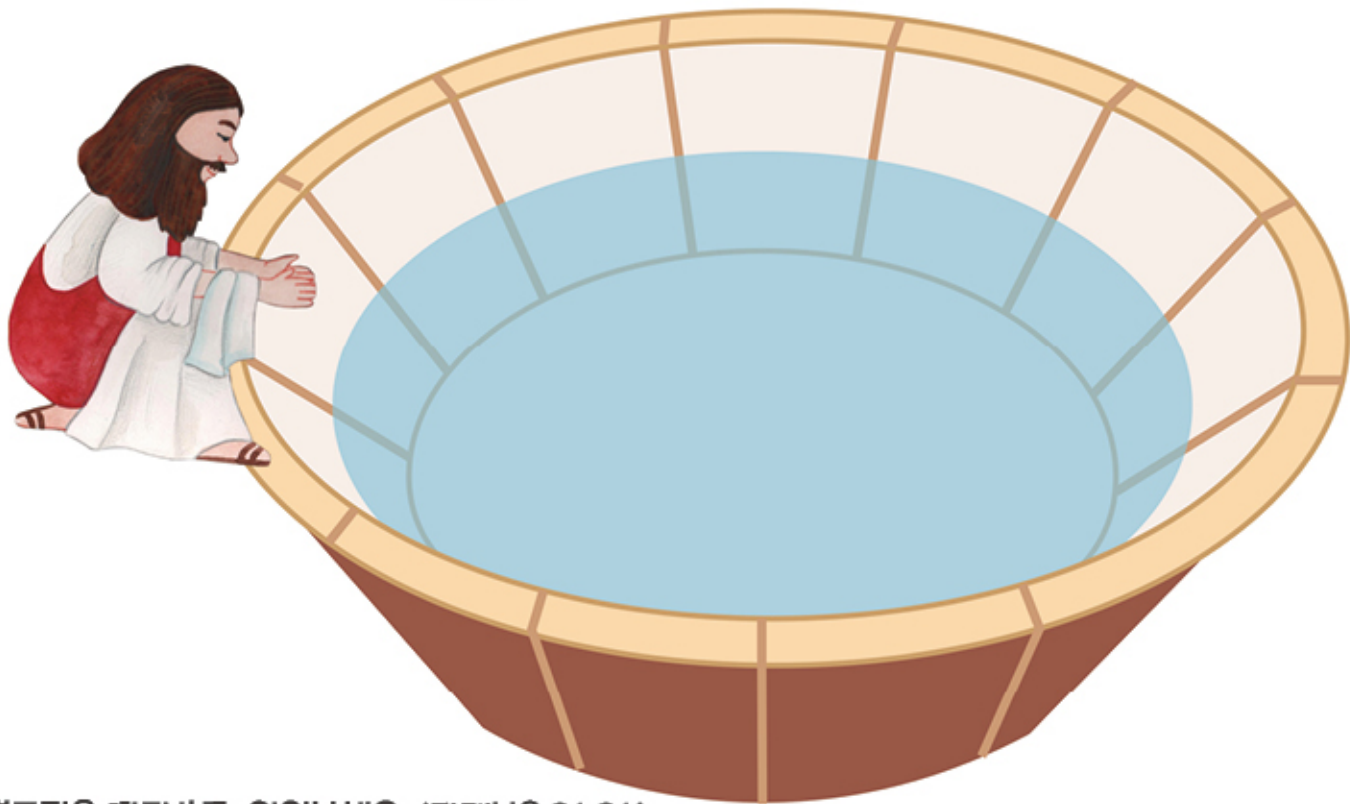
활동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활동 2.

나의 발을 예쁘게 그려보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워보세요. (마태복음 26:26)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